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민족복음화를 위한 육사 세례식 집례

27일(토) 오후 2시 우리 교회 주관 육사교회서
당일 12시 교회당 앞에서 육사행 버스 출발

금년도 우리 교회 후원으로 열리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이 이달 27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육사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실시되는 세례식에는 신입생도 70명 과 재학생도 10명 등 육사생도 80명, 근무 지원부대 소속 신우 50명, 일반 성도와 학생이 입교자를 포함 15명 등 총 150명이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세례식은 오후 1시 세례자교육에 이어 2시부터 드리는 예배 중 성찬식과 아울러 열리게 된다.

세례식 후 2부행사로 식당에서 친교 및 다과회가 진행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 집례뿐 아니라 예배 진행과 친교·다과회도 주관하게 된다. 찬양대원을 비롯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당

일 12시 서울교회당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복음화의 불씨라 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은 1993년부터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 오고 있다. 특별히 작년부터 '비전 2020운동' 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며, 진중 세례식을 통해 매년 22만 명 이상의 장병이 복음화되도록 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기여하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룩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의 육사세례식은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새 예배당 건축 현장 소식 ●

시온성 입성 빨라지는가?

"새 예배당 입주를 위한 이사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내년쯤 들을 수 있을 광고일까? 아니다. 이미 지난 주 수요일·II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러한 말로 시작된 이종윤 목사의 광고를 들었다. 공사가 예정보다 빠르다는 것은 알만한 성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설마 그 정도까지일까 하고 의문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암반·수맥처리 등 진행 순조

현재 굴토작업을 진행중인 용하건설 현장 소장 오정웅 이사는 이같은 빠른 공사 진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서울교회 공사중 가장 염려했던 부분인 암반 파쇄 작업이 예상보다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또 공사장에서 파낸 흙은 경기도 모처로 보내도록 계획을 잡았으나 뜻밖에도 서초구 모 지역에서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덤프트럭 운행 계획이 하루에 2회 운행할 것이 1일 12회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작업 진도가 빨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땅을 깊이 파들어 갈 때 부딪히는 큰 문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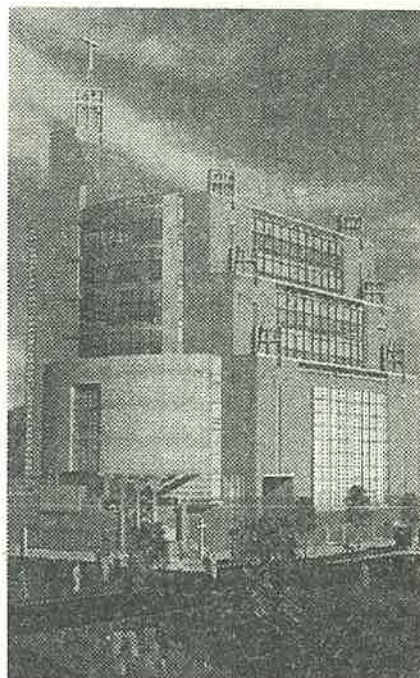
수맥처리문제가 예상을 뒤엎고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IMF상황으로 인해 공사인력 수급이 쉬워지고 장비도입이 원활해져 다른 공사장보다 매사가 쉽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소장 "굴토작업 바다 쳐"

한편 19일(금요일) 오정수 건축위원장 등 우리 교회 건축위원들은 설계를 맡은 정립건축의 김정철 회장과 시공회사 상상종합건설의 황치현 사장 등과 함께 건축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상상건설의 김정태 현장소장은 "이미 굴토작업은 바다를 치게 됐다"고 말하고 기타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1차 중도금 지급... 안전시공 당부

이에 앞서 교회는 지난 8일 건축경비 1차 중도금을 지불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는 시공회사측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 공사를 해 줄 것을 다시 당부했다. 또 공사 진도가 빨라짐에 따라 2000년 11월에 입당할 수 있을지 타진했다.



예상보다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새 예배당. 2000년 11월이면 입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새 예배당 건축이 예상보다 빠른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과 성도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 헌신으로 가능했다고 결론짓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사야 강해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이사야 19장 11 - 17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리실 때 전쟁이나 질병이나 가난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로 하여금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여 백성들이 모두 실족하고 멸망을 당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앙을 만나거나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원인을 밖에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며 보이지 않는 허점입니다. 재앙의 원인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 더 정확하고 겸손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지도자의 어리석음이 애굽을 망하게 한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재앙은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지거나 혼란에 빠져 백성들에게 길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지혜가 많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제대로 비행기 조종을 하지 못한다면 비행기 안에 타고있는 승객들의 운명은 죽음으로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1) 애굽의 지도자들의 자기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지도자들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애굽의 왕과 방백들은 마치 제사장과 같이 지혜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책은 하나님의 주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인간의 책을 지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의 자손', 혹은 '왕의 후에' 라고 부르기 좋아하고 지도자들 또한 그런 소리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고 과장하거나 꾸짖다고 과소평가도 하지 않으며 조용한 중에 일을 합니다. 애굽의 문명은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 보다 자기를 자랑하므로 결국 그 지혜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2)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증거
애굽의 지도자들은 때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인들은 예언을 좋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짓의 영에 끌려 다녔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지도자들은 예언을 하는 점술가를 찾아가거나 신접하는 일로 예언을 했습니다. 진리와는 먼 길만 쫓아다녔으니 그들이 하나님

그런데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강대국 애굽이 부녀들과 같이 무력해진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17절).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로 구원 계획과 심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후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 아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놈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중족들의 모퉁잇들이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혼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종운 목사

의 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애굽의 지도자들에게는 관리, 혹은 경영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못 가게 하였으니 애굽 지도자들에게는 국가를 이끌어갈만한 지도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들로서 부족의 모퉁잇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환상에 빠져있었고 그들의 빛과 지도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3) 어지러운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

어지러운 마음이란 혼동된 정신으로 인하여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은 가장 위급할 때 발휘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도자가 방향을 정해주고 갈 길을 바로 제시해줄 때 백성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15절의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 는 애굽의 지도층과 서민,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러니까 나라는 떠내려가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저주입니다.

2. 애굽의 심판

'그 날에' 는 앗시리아 군대가 애굽을 쳐들어오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판 계획입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앗시리아가 유다를 치고 다음에 애굽을 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군사적 계획이거나 한 국가의 운명의 문제라고 말할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나 한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라는 말씀은 앗수르군이 유다에 옴으로 유다군까지 애굽에 올 터이니 애굽인은 공포에 떨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이 망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아직도 뜨겁게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며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돌아와 개인이 살고 교회와 가정과 민족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농어촌 지원교회에서 온 편지

한번도 쉬지 않은 새벽기도

주추신(목사, 마장교회)

마장교회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15km가량 떨어진 면소재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예배 처소로 오천 3리에 있는 마을회관을 사갈채로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아직 밍는 성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곳 치명은 옛날부터 '당거리'라고 불려왔습니다. 이른바 무당들이 모여 굿하는 곳이라는 곳으로 무속 신앙이 깊은 곳입니다. 교회 부흥도 잘 되지 않고 있는 매우 신앙적으로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첫 개척된 92년 8월 16일 이후 어려운 중에도 단 한번도 새벽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도에 힘쓰라"고 하신 대로 교회 성장을 위해 매일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교회 성도들의 농촌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마다 큰 위로를 받고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고 있거나 없는지 돌아켜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식의 뜻없는 인생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수시로 돌아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물질에 빼앗긴 영혼을 모두 흔들어 깨워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로써 잠든 영혼들을 깨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얻습니다. 이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비록 숫적으로는 적을지언정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삼상 12:21-25)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듣는 새벽 종소리

김상두(목사, 금성교회)

덴마크 개척자 그룬트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자신의 조국의 땅을 개척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시골교회를 생각하면, 한국교회 초기부터 새벽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해온 것을 떠올립니다. "땡그랑 땡그랑" 울려 퍼지는 새벽 종소리, 또 시골 거리마다 솟은 십자가는 참 복받은 조국의 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은 변했고 교회도 따라 변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변하지 말라, 세상은 변하여도 부모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니 도덕심을 버리지 말라, 세상은 변해도 인간은 그저 그 인간이니 하나

님을 능가하겠다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라"고 했다는 영국 한 여교사의 자녀 교훈이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시골 교회는 교인들도 줄었고 집회 시간마저 생략하는 곳도 생겨나는 등 전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아름다웠던 한국 시골교회의 전통을 버리지 말고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관을 가지고 시골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서울교회가 민족복음화의 불씨가 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기도드립니다.



묵상일기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야단맞는 부모

우리 부모들은 앓으나 서나 자식 걱정이다. 실제로는 부모의 위치나 수준이 자식보다 높지도 못하면서 놓고 키웠다는 권위 하나 때문에 늙어 칠순이 넘어도 오십이 다된 자식에게까지 걱정을 떨구지 못한다. 습관성이어서 오히려 자식을 위축시키고 영원히 어린 아이로 만들 위험성도 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용돈을 자기가 벌어서 쓴다는데 한국 부모들은 안쓰러워서 말리고 다닌다. 예수의 어머니도 아이 가진 엄마심정을 뛰어넘지 못했다. 유월절 행사로 예루살렘에 갔다오는 길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안색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근심하며 찾았다고 실도하면서 완전히 어린 아이 취급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였다. 내가 내 아버지 집 곧 성전에 있어야 하는 사실 이외의 사실에 의심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씀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어떤 경우에도 정도를 견고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음을 믿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자식을 모두가 아버지 집을 고수함으로 부모들에게 야단을 치며 살아야 할 때이다. 다른 영동한 곳에서 길을 잃고 다니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믿게 해주므로 성전에 오면 언제나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겠다. 그것이 야단맞는 부모의 수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제 5학기 서울성경대학 등록 접수 중

평일을 이용해 성경을 공부하는 서울성경대학 제 5학기가 야고보서반, 말라기반, 고린도전서반, 느헤미야서반이 3월 29일(월)부터 개강한다. 제 5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음악교실의 등록금은 과목당 오천원이며 첫 수강자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하여 일만원이다. 문의 및 접수는 사무국.

서울성경대학 제 5학기 교과과정표(3~6월)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개강일
서울 성경 대학	야고보서	월요일 오후 8시	지혜영전도사	3월 29일
	말라기	화요일 오전 6시	박귀환 목사	3월 30일
	고린도전서	화요일 오후 8시	이성득 목사	3월 30일
	느헤미야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월 8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8시	허희철 집사 · 안진선 선생	4월 1일

민족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자

제 15학기 목회자세미나에 수고하실 분 모집

제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3월 29일(월) 개강하여 6월 7일까지 공휴일인 4월 5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에 10주간 강의를 하게 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제 15학기 주제를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정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어떻게 이 격변하는 세상에 선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제에 맞추어 다루게 된다. 제 15학기 프로그램은 옆의 표와 같다.

전국의 목회자들이 참가하여 한국교회갱신의 방안을 모색하는 목회자세미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봉사자들의 힘으로 원활히 진행돼 왔다. 이번 학기 목회자세미나도 식사준비를 비롯 차량관리, 안내 등 각 분야에서 수고하실 봉사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할 일	요일, 시간, 봉사할 곳	필요한 인원
식사 재료 구입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두 분 (운전 가능한분)
강의안 편찬, 제본	토요일 오후 3-5시, 사무국	여집사님 두 분
교재 및 유인물 준비	주 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모세선교회원
식사 준비	월요일 오전 6시 - 10시, 별관	하나, 에스더 회원
집꾸리고 이동하기	월요일 오전 9시 - 11시, 사무국	남자성도 다섯 분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차량관리 (Y정문, 지하, 양지아파트)	월요일 오후 1시 - 3시, 5시 - 6시	남자성도 여덟 분
안내 (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안내위원 열 두 분
등록 및 접수	월요일(첫 주주) 12시 - 오후 4시, YMCA	열 두 분(3인 1조로 4조)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여집사님 네 분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월요일 오후 1시 - 4시, 사무국	여자성도 한 분
배식, 음료수 대접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하나, 에스더 회원
교재 및 유인물 배부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모세선교회원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남자성도 열 분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6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4시 - 7시, 사무국	남녀성도 각 세 분씩

제1교시	제2교시
여호수아 강해	영성 묵회와 예배 갱신 정진경(신촌성결교회)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예배와 찬양 곽상수(연세대)
	치유 묵회의 방법과 실제 정경숙(총신대)
	영성 묵회와 그 사례들 김항안(한국교회정보센터)
	디아코니아 묵회와 교회 성장 성종현(장신대)
	교육 묵회 모델 은준관(연세대)
	개교회 전도폭발 전략 나점일(주안강로교회)
	한국 교회 설교 유형과 경향 박중순(총신교회)
	민족 75% 전도전략 이필철(비전2020운동본부)
	설교 준비 이렇게 한다 김성도(광림교회)

▲ 제 15학기 목회자세미나 프로그램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2일(월) CBS이사와 후원기관들 및 16개 교단장 초청 "기독교방송 선교후원의 밤" 행사에서 설교한다. 25일(목) 오후 3시에는 기독교학술원 주최로 여전도회관 루이스홀에서 열리는 신학공개강좌에서 "카리스마와 교회성장"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 루디아 제 5·6전도회는 22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 이번 주 식사는 최정환·윤금자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성서강해
기독교방송(HLKY 98.1MHz)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생명은 빛으로
극동방송(HLKX 1188KHz)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사순절을 지내며 ●

우리 교회 절제운동 캠페인 7가지

■ ...오늘은 사순절 다섯번째 주일이다. 근신과 자기 절제와 경건의 생활로 영적 훈련을 하는 사순절에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절제 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도 이를 힘써 실천하기로 했다...

- ① 1회용품 접이나 접시 사용을 금한다.
- ② 음식물을 남기지 말고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 ③ 주보나 성경공부 문답지를 버리지 말고 사용 후 가정에서 묶어 두고 활용한다.

- ④ 자동차는 가급적 2인 이상 승차한다.
- ⑤ 관혼상제 시 허례허식을 피하고 불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인다.
(우리 교회에서는 화환이나 축의금(또는 조의금) 대신 결혼하는 가정엔 성경 1권을, 장례식장에서는 성경 받침대를 빈소에 설치해 드리고 조의를 표한다)
- ⑥ 교회 인쇄물은 가급적 재생용지를 사용한다.
- ⑦ 화장실이나 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등한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육사례식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2.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3. 사순절을 절제와 경건의 삶으로 의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